

## 김원기(전 국회의장) 5차 구술

1. 구술자: 김원기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3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한백정치경제연구소
6. 구술분량: 13분 4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2002년 대선후보 단일화와 정치인 노무현의 원칙

면담자 : 투표 전날까지 계속 가장 큰 변수였죠. 그니까 시기로 보면은 그게 이천 이(2002)년 십일(11)월 삼(3)일날 정몽준 후보 측에 단일화를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구술자 :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큰 방향은 그 방법 말고 또 방법이 없었는데. 여론조사를,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항을. 문항내용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양 진영 간에 상당히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고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매듭지어버린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의 문항은 우리가 원하던 문항이 아니고 정몽준 쪽의 뜻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됐어요. 그 내용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내용이어서 저쪽은 그걸 요구하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안 되고 끌고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끝내버립시다’ 하고 그냥 그걸 받아버리는 결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 노무현 캠프에 충격은 컸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진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사람은 화를 못 견뎌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우간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고 그냥 받아버립시다’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받게 됐어요.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게 할 테면 그냥 쥐버리는 게 낫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뭐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고 그랬다니까. 지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정몽준이한테 쥐버린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여하튼간에 그건 대통령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해타산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딱하니 결단을 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그 이후에 대통령 된 다음에 모다(모두)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때 그 엄청나게 중요한, 그야말로 뻘히 불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건 후보 아니면 결단하기가 어렵지. 딴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은 역적 되지. 그런데 결과가 결국 아슬아슬하니 좋게 나왔지요. 그런 중에 그쪽 진영과 우리 진영 간에 무엇이(을) 했냐면은,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협력을 하고 그쪽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지 않겠어요?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요구가 있었어, 그 정몽준 쪽 요구가. 뭐냐하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외교, 안보, 국방 그것을 자기들 달라고 하고 그리고 경제 쪽을 하고 좌우간 그건 정몽준이 직접 나서서 한 건 아니라도 그쪽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하고 우리 진영의 협상대표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무리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요구가 있었던 배경에는 정몽준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면 당선 가능성이 있고, 정몽준 쪽에서 외면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도 이야기하기를 ‘대통령만 빼놓고는 다 들어줘서 손잡아야 한다’, 후보가 된 쪽에서는 그런 조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약점을 그쪽에서는 잡고 무리한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줄다리기가 참 심하니(심하게) 벌어졌어.

제일 처음에는 그쪽에서 어느 자리, 어느 자리를 준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을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그쪽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 그런데 이쪽에서도 도저히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버티고 나갔고. 그러나 완전히 등 돌리게 하면은 선거가 망치게 생겨서 한쪽으로는 논의를 더하자고 붙들고 이러한 것이 심하니 전개가 됐는데 최종에 가서 이제 거의 그 정몽준이 노무현 후보 당선, 선거전에 협력하고 나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지경까지 갔을 때에 정몽준 쪽에서 나를 긴급하니 좀 만나자 그래서 맨하탄, 지금은 렉싱턴 호텔이구만, (정몽준 쪽 관계자와) 거기서 만났어요.

면담자 : 여의도?

구술자 : 어, 여의도. 만났더니 이야기가, 서로들 지칠 대로 지쳤지. 마지막 이제

깨지는 그런 고비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어떤 것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서면이 아니고 말로써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후보) 단들이 만나서 결국 자리를 어떻게 배려하겠다는 그것을 말로써 해 달라, 그거지. 서류로써는 아니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법적으로 약속하는 건 지켜야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아무도 없는데서 단들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어떻게 배려하겠다는 이야기는 덕담에 속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적인 약속은 지켜야(겠)지만 정치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덕담 수준이다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 내가 그것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요구해오던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선거가 지고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건 상관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알았다. 그럼 내가 후보하고 당신이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내 통보를 해주마.’ 그리고 나는 사실 그게 노 후보도 고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 노 후보를 만났어요.

그런데 노 대통령이 “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노 대통령이. “정몽준이 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국민 앞에 단일화를 하는데, 어떤 자리 가지고 뒷거래는 않는다 고 몇 차례나 이야기했는데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단들이 만나서 덕담으로 한 이야기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너 그전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걸 실천하라’ 고 요구를 한다고 할 때 약속한 걸 어떻게 안했다고 합니까.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소신을 지키다가 낙선하는 걸 통해서 정치발전에 차라리 기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 협조로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자리 약속하고 대통령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니 내 소신을 지키다가 낙선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나도 두 번 이야기할 수가 없더만. 그래서 “말인즉슨 후보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반론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통보하겠다, 그쪽한테”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러면은 반발을 딱하

니 하고 달라질 줄 알았더니 결국 굽히고 들어왔어요. 해서, 이제 협력을 했잖아. 어떤 약속도 거절했었어, 이쪽에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참여해줬는데 결국 제일 끝에 가서 전날 그런, 결국 이탈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정몽준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은 이회창 이하고 싸움에서 이길 공산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이길 공산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말고는 딴 거 다 준다는 각오로 그쪽 요구를 들어 주고 참여를 시켜라’ 하는 것이 절대 다수 사람들의 여론이었어요. 요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참, 대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별 짓을 다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였는데 그 사람이 협력하면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낙선할 것이 십중팔구인 상황에서 ‘자리 약속하는 그런 짓하고 대통령은 안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해서 단호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정치인은 노무현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그것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남다른 면모 그것을 웅변해주는 좋은 일화라고 생각해요. 나도 사실 내가 감동받은 중에 가장 감동받은 것의 하나가 그 사건이었어요.

## ■ 구술자 주요이력

- 1937. 전북 정읍 출생
  - 1955. 전주고등학교 졸업
  - 1960.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1965.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 2004. 송실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 2005. 전북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 2009. 전주대학교 명예행정학박사
- 
- 1960. - 1976. 동아일보 기자
  - 1976. 동아일보 조사부장 겸 안보통일 연구위원
  - 1979.03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정읍·김제)
  - 1979. 신민당 원내부총무
  - 1981.04 제11대 국회의원(민한당, 정읍·고창)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정주·정읍)  
 1988.05 - 1990.02 평민당 원내총무  
 1990. - 1991. 국회 문교체육위 상임위원장  
 1991.08 - 1991.09 신민당 사무총장  
 1991.09 - 1992.05 민주당 사무총장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정주·정읍)  
 1992.05 - 1993.03 민주당 최고위원  
 1992.10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 부위원장  
 1993.03 - 1995.02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1993.04 민주당 광주특위 위원장  
 1995.12 민주당이 개혁신당과 통합, 통합민주당으로 당명변경  
 1995.12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1996.11 - 1997.11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대표  
 1997.11 국민회의 고문  
 1998.05 - 1999.06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1999.06 - 2000.01 국민회의 상임고문  
 2000.01 - 2000.12 새천년민주당 고문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전북 정읍)  
 2000.12 - 2001.11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11 - 2002.05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2002.05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치고문  
 2002.05 - 2003.09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재추대)  
 2002.12 - 2003.09 새천년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장  
 2002.12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정치고문  
 2003.10 - 2003.11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2003.11 열린우리당 창당  
 2003.11 - 2004.01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2004.02 - 2004.06 노무현 대통령 정치특보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정읍)  
 2004.06 - 2006.05 제17대 국회의장(전반기)

3선의 평화민주당 원내총무였던 13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 초선의원 노무현을  
 처음 만났다. 3당 합당 이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이후에는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서 함께 활동했다. 1997년 15대 대선 전후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에 같이 몸담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 후보의 정치고문을 맡았고 대통령 재임시절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나의 정치 고문이었다(138쪽)” 고 기록하고 있다.